

‘3점 산타’ 김낙현, 찬스마다 ‘징글벨’

성탄 연휴 마지막날, 2위 KGC 상대 3점슛 4개·15점·6AS...전자랜드 귀중한 1승

3쿼터 종료전·경기종료 2분전 매직 3점포
KT, SK에 역전승...서울 삼성, 4연승 질주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거듭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도 중위권 팀들은 떠나 할 것 없이 명승부를 연종했고, 자리바꿈은 지속됐다.

인천 전자랜드는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와 홈경기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3점슛을 터트린 가드 김낙현(3점슛 4개 포함 15점·6어시스트)을 앞세워 78-73으로 이겼다. 전자랜드는 13승12패로 단독 6위가 됐다. KGC는 고양 오리온(이상 14승10패)과 공동 2위.

전자랜드는 KGC와 시소게임을 펼쳤다. 2쿼터까지 38-38로 동점을 이룬 전자랜드는 3쿼터 중반 KGC 전성현에게 3점슛 2개를 허용하면서 9점차까지 뒤졌다. 하지만 전자랜드는 차분하게 반격을 시도해 60-60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3쿼터 종료 직전 김낙현의 3점포를 앞세워 63-60으로 역전한 채 4쿼터를 맞았다.

승부차였던 4쿼터도 매우 치열했다. 양 팀은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접전을 펼쳤다. 전자랜드는 경기 종료 2분 전 70-71에서 김낙현이 3점슛을 성공시킨 데 이어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투까지 넣어 3점차로 역전했다. 이후 2점을 내준 뒤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대의 실책을 전현우가 속공 2득점으로 연결한 덕분에 76-73으로 달아났다. KGC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낸 뒤 파울로 자유투까지 얻은 전자랜드는 귀중한 1승을 추가했다.

잠실에선 부산 KT가 13점차의 열세를 딛고 서울 SK에 91-8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3쿼터까지 67-80, 13점차로 밀렸던 KT는 4쿼터 시작 직후 브랜든 브라운(20점·12리바운드)의 3점슛 2개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꾸준하게 격차를 좁혀나간 KT는 8분여 동안 SK를 5점으로 묶으면서 20점을 쏟아내 87-85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후 SK에 자유투로 1점을 내준 KT는 김영환(20점)의 가로채기에서 비롯된 공격에서 박준영(11점)의 값진 골밑 2득점에 힘입어 3점차로 도망갔다. KT는 SK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SK의 미네라스(33점·7리바운드)는 2쿼터 10분간 21점으로 이번 시즌 한 쿼터 개인 최다득점 기록을 세우는 등 폭발적 공격력을 뽐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잃었다. KT는 12승11패로 5위로 올라섰다.

원주에서는 서울 삼성(13승11패)이 홈팀 원주 DB에 73-72로 승리, 4연승으로 단독 4위를 지켰다.

정필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전자랜드 김낙현(오른쪽)과 전현우(왼쪽)가 27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홈경기 도중 KGC 문성곤과 리바운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자랜드가 점전 끝에 KGC를 78-73으로 눌렀다. 인천 | 주현희 기자 teeh1147@donga.com



김숙 박나래 장도연

2020 예능 빛낸 ‘여인천하’

김숙, 데뷔 25년 만에 KBS 연예대상 수상
박나래·장도연 ‘올해 예능인 설문’ 2위, 6위

‘3년 연속 연예대상 여성 수상!’

방송인 김숙이 데뷔 25년 만인 24일 KBS 연예대상을 거머쥐면서 세운 기록이다. 2018년 KBS·MBC 이영자, 작년 MBC 박나래에 이은 김숙의 수상은 2년 사이 방송가에 거세게 분 ‘여풍(女風)’의 가장 큰 결실로 꼽힌다. 김숙은 KBS가 1987년, MBC가 1995년, SBS가 2006년 각각 연예대상을 제정한 이후 김미화, 박경림, 이효리 등에 이어 6번째 여성 수상자가 됐다. 그와 함께 박나래, 장도연도 여풍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작년 유력 수상 후보로 거론됐으나 무관에 그친 설움을 훌훌 털어낸 김숙은 올해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옥탑방의 문제아들’ ‘악인전’ 등 5편의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이경규, 전현무 등 다른 대상 후보들에 비해 KBS에서 특히 두드러진 ‘다작’ 행보였다. 그는 박나래와 함께 MBC ‘구해줘! 홈즈’, 송은이와 채널A ‘영화보장’, 이영자와 디지털 콘텐츠 ‘케이팝스타’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여성 진행자 투톱 체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작년 MBC 방송연예대상과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을 각각 수상한 박나래와 장도연도 올해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들은 한국갤럽이 11월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00명을 대상으로 ‘2020년을 빛낸 예능인’을 묻은 설문조사에서 각각 2위와 6위에 올랐다. 10위 안에 오른 여성 방송인은 8위 이영자까지 세 명에 그친다. 1위 유재석, 3위 강호동 등 남성 연예인들의 여전한 강세 속에서 일군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박나래는 29일 MBC 방송연예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간판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의 진행자에 이어 7월 ‘나 혼자 산다’의 유튜브 콘텐츠인 ‘여은파(여자들의 은밀한 파티)’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장도연은 차분한 입담을 무기삼아 개성을 발휘했다. SBS 교양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와 파일럿프로그램 ‘텔레비전에 그제 나왔으면’ 등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전면에서 이끌며 화제몰이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19일 SBS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의 활약이 최근 tvN ‘나는 살아있다’, E채널 ‘노는 언니’ 등 여성 출연자들로만 채워진 프로그램들이 속속 제작되는 등 방송가의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